

### “월정사 향낭 국내 最古 자수”

권영숙 교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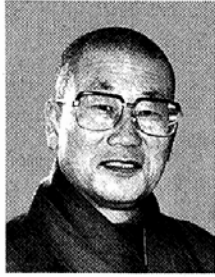
강원도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지난 70년 발견된 자수 향낭이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자수유물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권영숙(부산대 의류학) 교수는 18일 열린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자수향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자수향낭은 통일신라시대의 나(羅)직물로 유물 표면을 금니(金泥)로 처리한 우수한 공예품”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현미경 조사결과 자수를 놓기 위해 사용했던 실은 동시대 일본이나 중국에서 쓰던 편금사(금을 퍼서 실로 만든 것)나 연금사(금과 실을 함께 꼬아 만든 실)가 아닌 나금사(실에 금을 부어 만든 실)란 독특한 기법으로 특장적인 신라시대 자수 기술과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또 수가 놓여진 바탕 천으로 사용된 나(羅)라는 직물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쓰였던 천으로 재질이 망사처럼 얇고 가는 관계로 부식되기 쉬워 우리 나라에서는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유물이 거의 없다.

그 동안 통일신라시대의 직물류 표면장식기법에 대해 문헌으로만 전해졌을 뿐 현존하는 유물이 없었다. 이번에 월정사 자수향낭이 통일신라 조사팀에 따라 통일신라시대 전후의 화려한 나직물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세로 6cm 크기의 자수향낭은 향낭을 담는데 사용한 주머니로 표면에 화려한 연화문 자수가 수 놓여 있는 높은 수준의 예술품이지만 발견 당시 그대로 월정사에서 보관해와 보존처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오종욱 기자



△호진 스님

### 비관론

### “윤회 부정 수행 필요하겠나”

생명복제 시대에도 과연 불교 교리의 핵심인 윤회(輪廻) 사상이 수용될 수 있을까?

‘생명공학과 불교’를 주제로 다룬 <불교평론> 통권4호에서 “윤회사상은 도전에 직면하고, 수행 무용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비관론과, “유전자 조작은 삶의 변형일 뿐, 윤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낙관론이 나란히 나왔다.

특히 두 관점은 윤회의 원동력인 업(業)에 주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도, 업을 보

## 생명복제시대 윤회사상의 위상 비판-낙관 ‘팽팽’

는 관점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비관론을 펴고 있는 호진(동국대 교수) 스님의 경우, “업은 각 개체의 의지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업을 다른 존재에게 이전시키거나 다른 존재가 지은 업의 결과를 대신 받을 수 없다”고 한 반면 최정규(고려대 강사) 박사는 “업을 담고 있는 장(藏·아뢰야)은 깨달음을 갖춘 수행의 과정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한 생명체의 업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지만, 태어난 후에 이 생명체가 짓게 될 새로운 업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관론은 ‘업의 계승’에, 낙관론은 ‘업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와 같은 상대적인 결론을 추론했다. 호진 스님에 따르면, 윤회 사상은 관점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호진 스님에 따르면, 윤회 사상은 관점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정규 박사

### 낙관론

### “유전자 조작 삶의 변형일 뿐”

깨달음을 성취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 역시 일정한 수행의 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격은 단순한 복제와 달리 주체적인 자각과 수행을 통하여 인격을 질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인데, 최 박사는 “이러한 점에서 윤회설은 생명공학의 영역을 진정으로 포섭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opia.com)

## “계·정·혜 통해 한국불교 정체성 찾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화두를 버리고 선정(定), 계율(戒), 지혜(慧)로 무장된 선(禪)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형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한국불교의 화두·간화’와 ‘돈오를 넘어 새 정체성 만들기’를 통해 “한국불교의 활로는 수행과 일상의 지평선 위에 있다”며 “수행의 초점은 돈오(頓悟)가 아니라 점수(漸修)에 있을 것”을 요청했다. 화두가 등장하면서 약해진 선정을 좌선으로 키우는 한편, 일상에서도 자각의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좌선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일상의 자각을 보태는 수행법을 찾아야 한다”며 “좌선으로 닦은 선정은 현대 문명을 구원하는 주제로 승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형조 교수

### “화두 넘자”

### 강력 주장

그 다음으로 한 교수는 “화두나 돈오에 밀려난 계율과 지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실천을 중시했던 초기의 선 수행자는 윤회의 사원에 기거할 만큼 계율에 충실했다. 또 경전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이를 다시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이해해, 선에 지혜를 접목시켰다.

또한 한 교수는 삼학으로 새롭게 일어난 선을 철저하게 수행할 때, 한국불교의 구조적 모순인 사찰 입장론과 신도 보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데도 주목했다. 한형조 교수는 결론에서 “화두와 돈오에 의해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었던 불교의 풍부한 전통을 삼학(三學: 계·정·혜)의 선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 김 박사는 초기·부파불교 경전에서 선정수행의 예비과정으로 지·관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국내에서 간화선의 전통만을 내세워 초기불교에 나타난 수행을 비판하고 있지만, 지관(止觀)이야말로 석가모니가 수행한 근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결론에서 “선정수행의 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선 ‘선정수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 “선정수행 핵심 ‘앓’ 아닌 ‘닦음’의 문제”

김준호 박사 ‘초기불전에 나타난...’ 발표

“간화선 일면도의 수행에서 벗어나, 초기 불전에 나타난 일상적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준호(부산대 강사) 박사는 한국선학회의 월례발표회에서 “초기불전에 나타난 지관(止觀)개념”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김 박사에 따르면 초기불교의

근본선(禪)은 욕망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욕망이라는 끊임 없는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선 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깨달음이 나 성불을 이상으로 삼기보다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실천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 박사는 “초기불전에서 지



김준호 박사

### “선정수행 핵심 ‘앓’ 아닌 ‘닦음’의 문제”

### 김 박사는 “초기불전에서 지

(止)는 감각적 욕망이 그치고 사라진 상태이고, 관(觀)은 무아, 무상 등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관찰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개가 결합되는 순간이 ‘정각(正覺)’의 경계에 들어선 선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찰 편액을 찾아서

24탄허의 월정사·정암사 편액



△정선 정암사 일주문 편액

탄허 백성(吾虛 宅成·1913~1983)은 근대를 대표하는 학승으로 정라북도 김제군 망령에서 김홍규(金洪奎)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2세가 되던 해에 오대산 상원사 함암 종원(漢岩 重遠)을 은사로 출가, 참선 수행에 매진하였다고 한다. 이후 그는 오대산현수원 원장, 월정사 조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특히 한문 대



△평창 월정사 편액

### 월정사 적광전

### 心意대로 쓴 선필 행초

### 태백산 정암사

### 통판에 음양각으로 새겨

정선 정암사 일주문에 걸려있는 <태백산정암사> 편액은 변죽을 따로 붙이지 않은 통판에 음양각으로 글씨를 새긴 것으로, 액판 좌측에 두줄로 ‘무오중추 탄허(戊午仲秋 吾虛)’라는 판지가 있다. 이 편액은 1978년 가을에 일주문을 신축하면서 당시 월정사에 머물던 탄허의 글씨를 받아 간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탄허 특유의 호방한 선필이지만, 글씨의 아래 위 액판의 여백이 충분치 않아 편액의 모양이 다소 웅색한 느낌을 준다. 안병민(대한불교진흥원)의 종합적 성격(이병욱) 등이 발표된다. (054)746-0109

## 학술단신

### 원효학연구 학술회의

원효학연구원은 25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원효의 실천행’(김상현), ‘원효학에 있어서의 실천행’(도업스님), ‘죽신성불의 원리와 실천수행법’(종식스님), ‘원효학의 사상사상’(신규박) 등 4개의 주제발표가 있다. (02)913-0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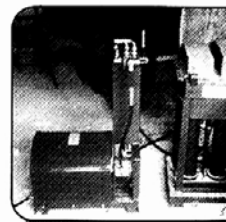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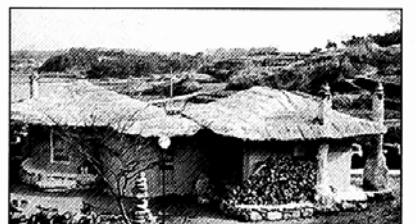
### 진각논문대상 발표회

진각종 교육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종인원에서 제2회 진각논문대상 발표회를 갖는다. 발표회에는 ‘법해각간의 고대불교사 연구에 관한 검토’(오경후), ‘까말라 일라의 소의불성의 귀류는중적 해 결에 대하여’(이종복), ‘위·진 시기 현학과 반야학의 관계 연구’(김진우) 등이 발표된다. (02)913-0755

##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연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항토마을

왕토마을에서는  
○ 왕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인산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닭이 함유되어 있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던 것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IMF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

## 불교대학친선체육대회안내

### 한국불교법사대학 대 동방불교대학

귀의 삼보 하옵고, 만산총림이 더욱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금반 양 불교대학 학생회에서는 여래의 인지법행에 의해 보살의 학업을 탐마하는 양대학 학생들간에 우호협력증진을 통해 지목행족(智目行足)의 성취능력을 더욱 진작시키고자 하는 바램의 행사 일환으로 상호 친선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로 인해 불교발전과 탁월한 불교교역자의 역할수행에 선진적 활로가 성취되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과 격려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 행사안내

- 행사명 : 제1회 한국불교법사대학 대 동방불교대학 친선체육대회
- 일시 : 2000년 10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 서울 성북동 소재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 참가대상 : 양 대학 재학생·동문 및 가족
- 주관 : 동방불교대학 학생회·한국불교법사대학 법사위원회
- 후원 : 한국불교법사대학, 동방불교대학,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한국불교법사교단
- 협찬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한국불교신문사, 한국불교태고종 교인협의회, 법사불교신문

한국불교법사대학 ☎ (02) 720-1836  
동방불교대학 ☎ (02) 763-8536